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2

“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시민예술대학”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문화재단 10th SINCE 2004

서울문화재단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2

"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시민예술대학"

서울문화재단

예술이 교육이다

2014. 12. 22(월) 14:00~16:30

서울연극센터 2층 아카데미룸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 02)3290-7000 Ⓕ 02)6008-7346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 02)758-2000 Ⓕ 02)6008-7347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Table of Contents

04 서울문화재단(서울창의예술학교) 소개

05 서울예술교육포럼 개요

주 제 발 표

06 주제발표
시민예술대학의 필요성과 서울형 모델 제안
백선혜(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라운드 토론

28 토론 1
이흥재 _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30 토론 2
백 령 _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32 토론 3
주일우 _ 문학과지성사, 문지문화원 사이 대표

34 토론 4
박영정 _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36 토론 5
최혜자 _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소개

서울문화재단

설립연도	2004년
사업분야	• 예술창작 활성화 • 시민창의력 개발 • 생활 속 문화복지 증진 • 문화도시브랜딩 제고 • 문화공간 활성화 및 문화인프라 조성 • 문화네트워크 촉진 및 문화예술 대외교류 활성화

창의적인 문화도시 서울,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갑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만듭니다.

예술의 창작지원부터 생활 속 문화향수를 위한 축제와 문화사업,
그리고 예술을 매개로 한 창의적인 예술교육사업까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향기를 서울 곳곳에 퍼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세상, 따뜻한 감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가는 창조문화도시 서울의 미래입니다.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서울창의예술학교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서울창의예술학교〉는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통합브랜드입니다.
〈서울창의예술학교〉는 미적체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체험교육을 지향합니다.
〈서울창의예술학교〉는 통합예술교육으로 깊이 있는 예술의 이해와
다름을 통한 소통을 실천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 모두가 예술을 통하여
미래의 경쟁력인 상상력(Imagination)과 창의성(Creativity)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배우며, 성장하는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개인의 미적체험을 통해
인성의 풍요로운 발전은 물론 삶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서울창의예술학교〉는 예술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합니다.

우리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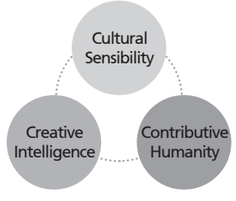
서울을 대표하는 창의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
창의시민으로의 변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향유기회 확대
예술교육가 양성을 통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실현
학교연계 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역할 강화

우리의 지향점 : 지성, 감성, 인성교육(3C)

Cultural Sensibility 문·화·적·감·성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감성교육

Creative Intelligence 창·조·적·지·성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지성교육

Contributive Humanity 사·회·공·헌·적·인·성
예술과 문화를 통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공헌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포럼개요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2

"예술이 교육이다"
"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시민예술대학"

서울 예술교육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올해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이 교육이다"를 대명제로 5월 포럼에서는 예술교육의 방법론,
11월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예술교육의 교사론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함께 해왔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12월 포럼 〈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시민예술대학〉에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획의뢰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해온, 서울시민을 위한 예술교육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로서 '시민예술대학 모델'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합니다.
본 연구결과와 제안에 대해 예술교육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개 토론하여 서울에 보다
적합한 모델을 함께 탐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4:00~14:10 (10분)	오프닝	**포럼 오프닝** 라도심(사회자) _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연구와 포럼 간략 소개
14:10~14:40 (30분)	주제발표	**시민예술대학의 필요성과 서울형 모델 제안** 백선혜 _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민의 문화예술교육실태 및 수요 조사', '시민예술교육의 방향관련 전문가조사' 등 주요 연구결과 공유 • 문화도시 서울에 적합한 시민예술 교육체계 및 시민예술대학 모델 제안
14:40~14:50 (10분)	**휴식 Coffee Break**		
14:50~16:00 (70분)	라운드 토론	토론1 **이흥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토론2 **백 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토론3 **주일우** 문학과지성사, 문지문화원 사이 대표 토론4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론5 **최혜자**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16:00~16:30 (30분)	플로어 질의응답		

주제발표

주제발표

시민예술대학의 필요성과 서울형 모델 제안

백선혜(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시민예술대학의 필요성과 서울형 모델 제안

백선혜(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1. 개관
2. 프로그램 운영실태
3. 문제점

II. 예술교육 수요조사
1. 조사개요
2. 시민예술교육실태
3. 시민예술교육의 역할과 문제점
4. 개선방향
5. 소결

III. 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1. 시민예술교육의 방향
2. 서울시민예술대학 모델(안)
3. 서울시민예술대학 운영체계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1. 개관
2. 프로그램 운영실태
3. 문제점

1_ 개관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 학교와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양분
  -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심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수기회 확대에 초점
  - 2005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지원사업
  - 2006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09 지자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0 지역사회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최근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초점 변화
  - 적극적, 능동적 시민의 등장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층 확대 경향
  - <사회>가 복지기관, 시설, 군, 교정시설, 소년원 등에서 지역사회로 확대

1_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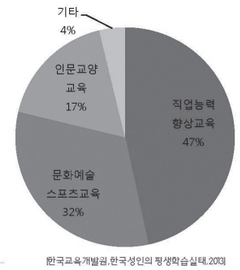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정책

- 2000년대 이전은 교양 위주의 시민대학 중심
-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정책에 본격 등장
  - 학생·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 초·중·고교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학교가 직접 수행 또는 문화예술단체와 공동 주관
    2) 일반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 등에서 실시
    3) 예술가 및 문화예술매개자 등 전문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 서울문화재단 청사 및 연습실을 교육센터로 활용
  - 서울형 예술학교 창설: 시립예술아카데미
    1) 일반시민 대상 이론, 감상 위주의 문화예술교육
    2) 소외계층 중 재능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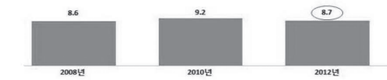
학교 중심 | 단기, 감상 중심 교육 | 소외계층 중심

1_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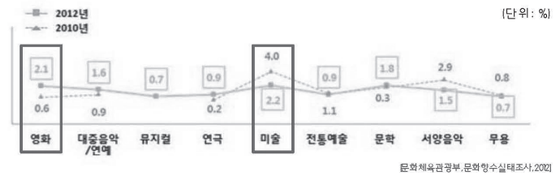
- 2013년 전국민의 30.2%가 평생학습에 참여
- 국민의 문화예술교육경험률은 8.7%에 불과



한국교육개발원,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2013



-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평균 1.4%



문화체육관광부,문화향수실태조사,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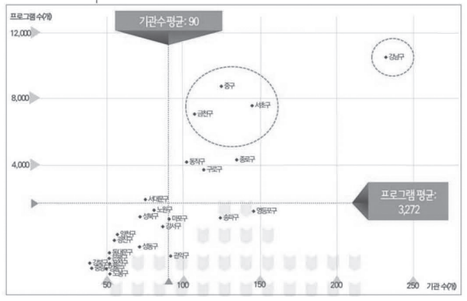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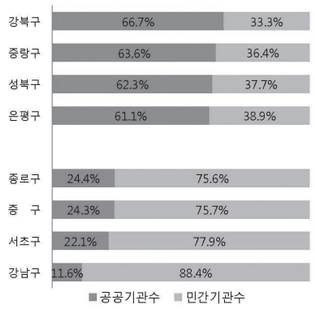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1_ 개관

•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수의 자치구별 격차 존재**

- 강남, 서초, 중구 등 기관과 프로그램이 많은 곳은 민간기관의 비중이 높으며,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강북, 중랑구는 기관과 프로그램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서울특별시, 2013.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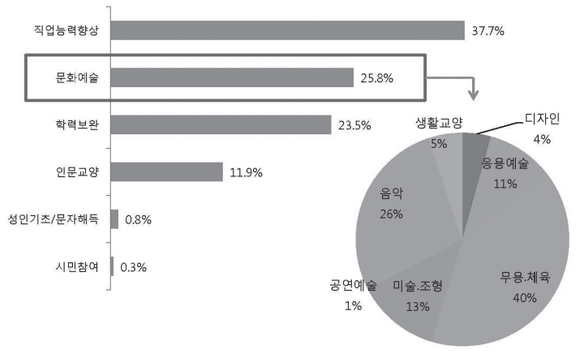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1_ 개관

• **서울시 8만여 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분야는 25.8%**

-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 중 무용. 체육 및 음악 강좌가 66%로 대부분



[서울특별시, 2013.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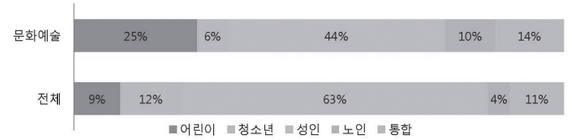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1_ 개관

• **문화예술강좌의 성인대상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평생교육프로그램 전체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강좌는 어린이와 노인대상이 많은 반면, 성인프로그램 비중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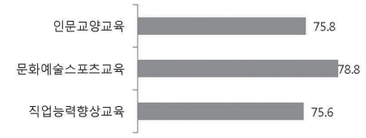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2013.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1_ 개관

• **평생교육 가운데 문화예술스포츠분야 만족도가 가장 높음**



[서울특별시, 2013.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교육 참여의사는 높아지는 경향,**
특히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일수록 참여의향 뚜렷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12

2_ 프로그램 운영실태

기관별 예술교육 현황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9개 사업(예술교육팀 4개) / 창작공간본부 13개 사업 / 문화사업본부 2개 사업
서울시민대학	시민청 시민대학 문화예술강좌 비중 15.7% 수준 평균 수강료 4.5만원(평균 12회)
세종예술아카데미	10개 강좌 평균 수강료 68만원(평균 12.5회) 강좌당 수강생 평균 52명
송파생활문화대학	문화예술강좌 비중 15.2% , 평균 수강료 1.5만원(평균 12회, 강좌당 평균 45명 수강)
가산동 주민센터 잠실2동 주민센터	문화예술강좌 비중 14.2 / 33.9%, 평균 수강료 4.5만원(평균 12회)
신세계 아카데미	문화예술강좌 비중 14.5% 수준, 평균 수강료 8.2만원(평균 10.9회 강좌당 평균 23.5명)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2_ 프로그램 운영실태

서울문화재단

서울창의 예술학교	• 방과후 돌봄교실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돌봄> • 교과연계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 중점학교> •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서울창의 예술교육 아카데미	• 창조적 예술교육가와 문화매개자(공무원, 교사) 양성 • 창의예술교육과정 •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서울시민대학

서울시립대 시민대학	• 시립대 본교 16개 강좌 540명/ 청계천 분교 59개 강좌 1,821명 • 예술강좌 비중 약 13% : 미술(동양화, 서양화, 데생, 서예, 사진), 전통무용, 음악(가곡, 성악, 통기타, 색소폰) 강좌 개설 중
권역별 시민대학	• 권역별 시민대학 : 10개 대학 30개 강좌(주1회 10주간) • 예술강좌 비중 약 10%
시민청 시민대학	• 5개 분야 워크숍과 명사특강 • 워크숍 형식의 예술강연 5% 미만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 인문학 위주의 12개 강좌 10주 과정 • 예술강좌 없음. 강좌별 50명 규모로 운영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2_ 프로그램 운영실태

세종예술아카데미

광화문 예술 오아시스	• 히든보이스 • 장단과 디딤새 - 한국무용 옴니버스 • 세종시민국악 프로젝트
예술 아카데미	• 정오의 클래식/ 정오의 음악회/ 오페라 플러스 • 영화속 미술/ 음악으로 읽는 미술사
세종르네상스	• 국악더하기 -조선실용인문백과<임원경제지> • 세종클래시카-오페라와 발레

가산동 주민센터

문화예술	• 서예, 사군자 2개 강좌 / 15.3%

잠실2동 주민센터

문화예술	• 창의력 어린이 미술 • 가락장구, 경기민요, 노래교실 • 사군자, 서양화, 서예/14.2%

I.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문제점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2_ 프로그램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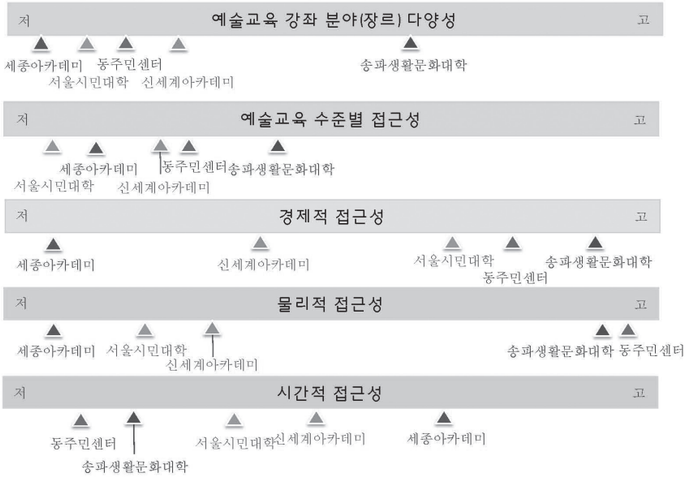
신세계문화센터

프리미엄 아카데미	• 인문/사회/예술 : 서양미술사, 클래식과 미술의 만남 등 2~12회 강좌 6개 12월 1회성 강좌 50개		
성인 일반	• 서예/동, 서양화/꽃꽂이/공예 22개 • 악기/노래/성악/팝송/ 국악 6개		
성인스페셜	골드키즈 아카데미	키즈 일반	단기 특강

송파생활문화대학

건강	• 단전호흡, 스포츠 댄스(탱고, 왈츠, 브루스), 모던댄스(왈츠, 탱고, 살사 등), 요가 등 31개 강좌
전통문화	• 한국무용, 풍물놀이(초/고급), 가야금 6개 강좌
문화예술	• 노래교실, 사진교실, 하모니카, 사서삼경, 서예 등 9개

2_ 프로그램 운영실태



3_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함

-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평생교육 내 문화예술 비중이 낮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성인대상 프로그램 비중 낮음
- 예술교육 참여자일수록 향후 교육참여 의사가 높음

문화예술교육의 지역간 편차 존재

- 평생교육은 민간기관 주도 중심 → 프로그램의 정형화 우려
- 평생교육기관수 및 프로그램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

문화예술교육의 기관간 편차 존재

- 장르별, 수준별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
- 경제적, 시간적,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초보자 수준

- 기초강좌 중심
- 일회성 강좌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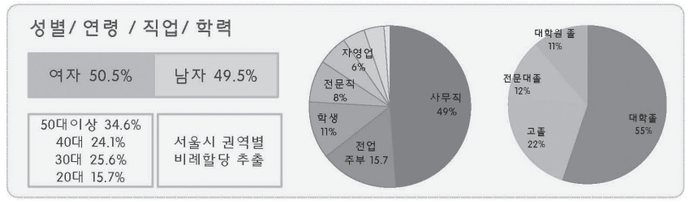
II. 예술교육 수요조사

1. 조사개요
2. 시민예술교육실태
3. 시민예술교육의 역할과 문제점
4. 개선방향
5. 소결

1_ 조사개요

일반시민 수요조사

조사기간 : 2014년 11월 3~13일
조사대상 : 20대 이상 서울시민 1,000명(문화예술관련 종사자 응답자에서 제외)
조사방법 : 온라인 서베이(인구/성별/거주지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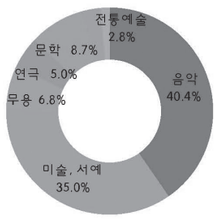


전문가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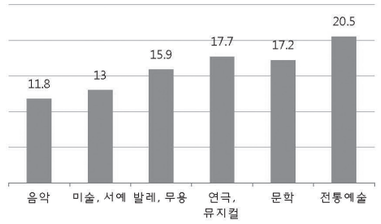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14년 11월 21일~ 12월 3일
조사대상 : 문화, 예술교육,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213명(회수율 26.7%)
조사방법 : 온라인 서베이

2_ 시민예술 교육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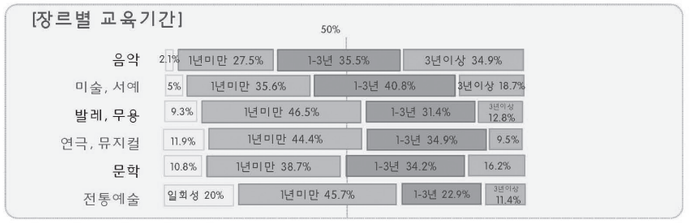
[장르별 예술교육 경험률]



[장르별 최초 교육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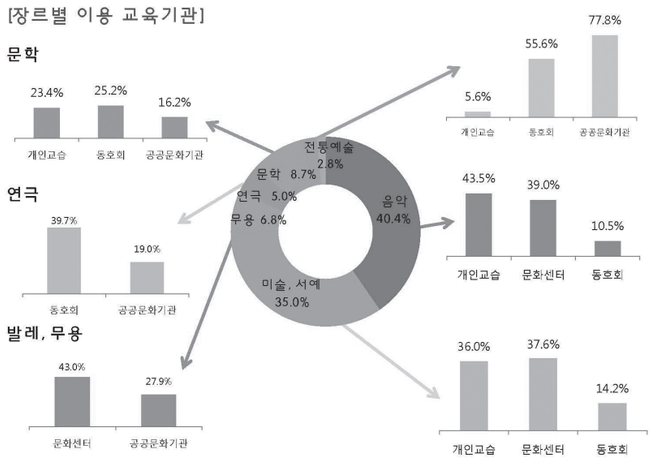
[장르별 교육기간]



[출처: 시민 조사]

2_ 시민예술 교육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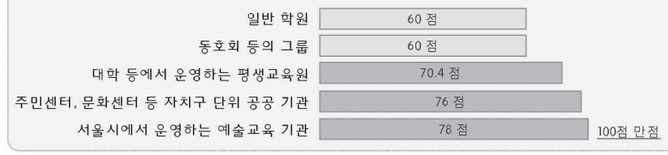
[장르별 이용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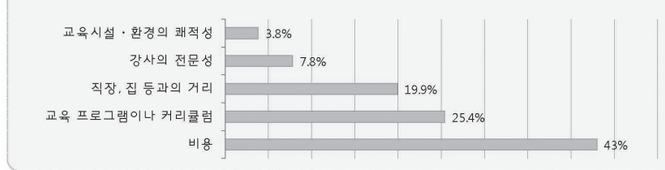
[출처: 시민 조사]

2_ 시민예술 교육실태

[예술교육기관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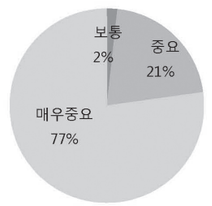
[예술교육 선택시 고려 요소]



[출처: 시민 조사]

3_ 역할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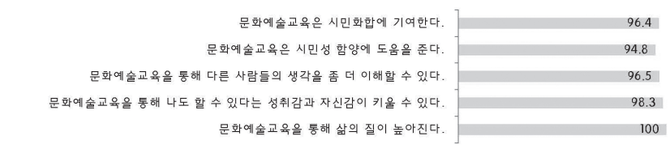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 개인 – 심리정서 개선, 자아 실현, 행복 추구, 삶의 질 제고, 유연한 사고력 향상 등
⇨ 행복한 삶

✓ 사회 – 문화다양성 확대, 사회치유, 민주시민 양성, 사회적 관계 확장, 타인에 대한 공감대 확장
⇨ 소통이 가능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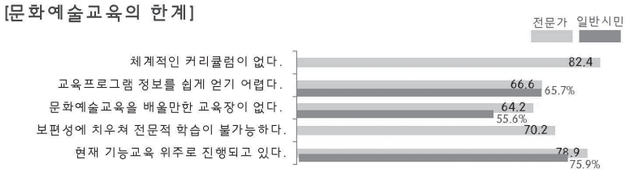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출처: 전문가 조사]

3_ 역할과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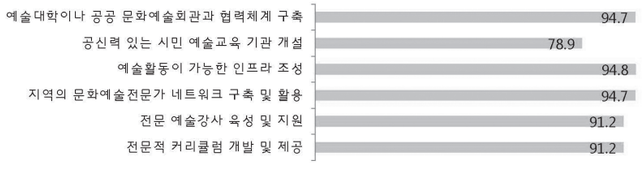
전문가 VS 일반시민

전문가	일반시민
전문성 부족	교육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
일반 시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관련 교육정보 취득 어려움
장르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비용과 시간의 접근성 높음
교육의 효과 보다는 성과 중심	지속적인 교육받을 자신감 부족

[출처: 시민/전문가 조사]

4_ 개선방향

[예술교육체계 제안사항]



[기타의견]

✓ 네트워크
- 다양한 예술분야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산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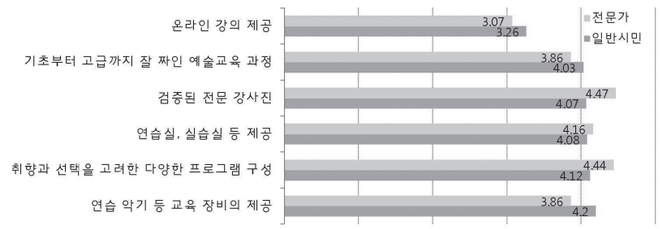
✓ 커리큘럼
- 준전문가 수준의 문화예술적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순수 문화예술교육기관
- 시민주도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기획
- 장르별 기술교육을 넘어선 커리큘럼 개발
- 예술강사 재교육

✓ 문화예술 교육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출처: 전문가 조사]

4_ 개선방향

[예술교육 선택시 희망사항]



✓ 교육에 대한 접근 용이성 보장(교육참여의 편리성)
✓ 수업료의 적정성
✓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교육내용에 대한 정확한 홍보
✓ 수강생간의 네트워크 형성 유도

[출처: 시민/전문가 조사]

5_ 소결

예술교육 경험률 61.6%

- 예술교육을 받은 경험률은 높은 편이나 수강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1~3년 미만)
- 음악/미술 교육 참여가 압도적

시민예술교육의 중요성 증대

- 예술교육을 받은 시민은 시민의 삶의 질, 성취감, 자신감 고취 등에 긍정적 반응
- 문화다양성 확대, 사회치유, 민주시민 양성, 사회적 관계 확장, 타인에 대한 공감대 확장에 필수 조건

예술교육을 위한 주 고려대상은 비용과 전문성

- 교습학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문화센터 등에서의 예술교육 수요가 낮음
- 공공지원을 통한 저렴한 비용의 전문적인 예술교육 선호
- 커리큘럼,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 강사진이 갖춰진 예술교육에 대한 신뢰도 높음

5_ 소결

공공이 제공하는 시민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상호보완적 역할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존에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주관 단체/기관의 역할 재조정 및 검토 필요

전문성이 강화된 시민예술교육이 필요

- 실기(기능) 위주의 예술교육으로는 문화시민 양성에 한계
- 시민성 함양, 사회문제 해결, 시민문화향유권 확대의 수단이 시민예술교육

III. 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예술이 교육이다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1. 시민예술교육의 방향
2. 시민예술대학 모델
3. 시민예술대학 운영체계

1_ 시민예술 교육의 방향

세계 예술교육의 트렌드

평생교육(성인대상교육)으로 확대

- 학교예술교육 → 시민예술교육 강조
- 만인의 예술교육(Education for All)을 통한 창의력, 상상력, 혁신 등은 문화간의 소통, 평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함
- 예술교육발전지수(Arts Education Development Index) 개발 노력 중

예술의 효과성 극대를 위한 예술교육 정책 마련

- 양적 예술체험 기회 제공 정책에서 예술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 교육 없는 예술참여 기회의 확대는 사회양극화를 도리어 촉진

예술가-시민-기관-지역 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형성

- 전문 예술인(은퇴자 포함), 지역 커뮤니티,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실, 박물관 등), 예술대학 등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한 시민예술교육 기능 확대
- 지역사회 내 예술동아리 형성 유도로 지속적 예술활동 장려

1_ 시민예술 교육의 방향

서울시민을 위한 새로운 예술교육체계 필요

"행복한 삶, 문화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사회의 조성"
"인성교육, 개인역량 강화 필수"

개인역량 강화가 시민역량 강화의 밑거름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시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개인의 주체적 역량을 근간으로 사회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함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방안,2004
- 예술을 매개로 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지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문화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응에 관련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술교육은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영유아기의 취학 전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학교교육에서 학교 밖 교육까지 연계되어야 하며,
  예술교육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을 통해 자율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의 특화 필요
- 유기적 연속성을 갖고 각종 예술교육기관과 연계필요

1_ 시민예술 교육의 방향

예술교육의 지향점은 수월성과 보편성 간 균형

- 문화복지관점 접근으로 인한 역차별 계층이 20~40대 일반 시민
- 문화복지성 예술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일반인 대상의 시민교육까지 아우르는 능동적 문화소비자 육성해야 함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2014]

시민예술교육방식의 변화 필요

- 시민의 문화수용력, 문화향유력만을 강조한 문화예술교육은 일회적이고 소비적인 문화교육프로그램에 국한된 경향
- 기능(실기) 중심 교육의 한계로 인해 문화적 감수성은 여전히 부족
- 장르간 융합과 연계, 통합교육 등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
-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역시 필요 [전문가설문조사]

1_ 시민예술 교육의 방향

새로운 예술교육체계로서 서울시민예술대학 제안

방향

- 시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예술교육
- 일회성·향유 중심 교육 → 단계적·전문적 교육
- 기능(실기) 중심 교육 → 통합적·창의적 교육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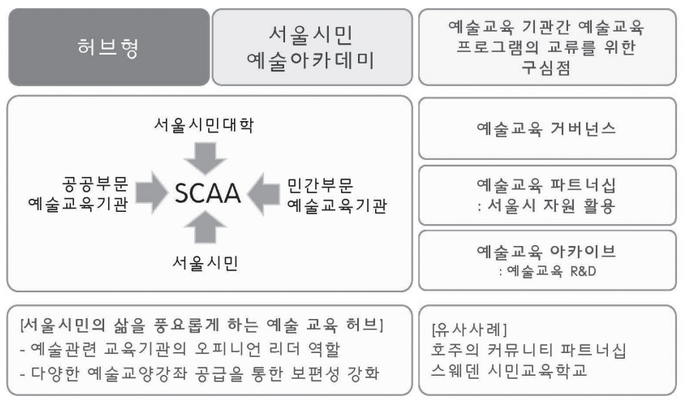
- 시민 주도적 예술교육의 기회 제공
- 준전문가 수준의 문화예술적 식견 습득의 장
- 예술교육 커리큘럼의 연구, 개발
-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예술교육 네트워크 형성
-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예술교육 네트워크 형성
- 예술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재교육

→ **서울시민 예술대학**

2_ 서울시민 예술대학 모델(안)

비전	문화적으로 충족된 삶을 함께하기 위한 수준 있는 예술교육기회 제공		
미션	보편적인 예술교육	접근성 높은 예술교육	수준 있는 예술교육
모델	허브형	매개형	전문교육형
형태	서울시민 예술아카데미	서울시민 예술교육센터	서울시민 예술대학
역할	예술교육 기관간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교류를 위한 구심점	시민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전문강사)을 매칭	수준별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전문 예술교육
기대효과	• 예술교육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시민예술교육의 선진방법론 제공	• 기존 예술교육 자원의 활용도 제고 • 시민예술교육의 확산을 주도	• 성인대상 예술교육 특화 •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3_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체계



3_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체계

[참고사례] **호주의 커뮤니티 파트너십**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지역 사회의 문화적 발전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예술가, 지역 사회 문화예술기반시설,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원
- 지역 사회, 지역 예술가, 지역민, 문화기반시설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 크로스 섹터(cross-sectoral) 파트너십 설정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소인 예술의 역할 인식 및 이해 제고

[참고사례] **스웨덴의 시민교육학교**

- 성인을 위한 교육과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와 시민문화예술교육의 결합모형
  : 지역 내 시민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및 지역내 시민문화 동아리를 만들어 자생적 활동구조를 갖출 때까지 컨설팅 지원

3_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체계

매개형	서울시민 예술교육센터	시민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강사)을 매칭
서울시민 ⇩ SCAE ⇩ 예술교육 전문강사/프로그램		장르별 교육자원 네트워킹 : 인력, 공간 등 활용 극대화 예술교육정보센터 : 관련 정보제공 및 매칭역할 예술교육 아카이브 : 예술교육 R&D
[시민이 원하는 예술교육을 찾아주는 설계사] - 수요자 중심으로 예술교육 공급자 와의 매칭을 통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 예술교육의 경제적, 물리적 접근성 완화		[유사사례] 독일 무직술레 프랑스 상트르 다니마시옹

3_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체계

[참고사례] **프랑스의 상트르 다니마시옹(Centre d' Animation)**

- 동네 곳곳에 있는 문화센터로 일반대중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 접근성, 편의성, 경제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보임
-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상급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 또한 원활

[참고사례] **독일의 음악교육기관 무직슐레(Musikschule)**

- 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공립학교에서 선택한 악기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매칭시켜 주는 역할
- 운영비의 60%는 수강생이 부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다수가 음악 연주자, 감상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예술자원 네트워크 활용: 재능기부 형태의 음악교육기관

3_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체계

전문교육형	서울시민예술대학	수준별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전문 예술교육
SCAC ⇩ 준전문과정 / 평생교육과정 ⇩ 시민교양과정		예술교육 전문화 인증 (마이크로 인증제) 교양강좌 뱅크 : 전문예술교육 확산 유도 예술교육 아카이브 : 예술교육 R&D
[서울시민의 예술적 수준을 높여주는 전문교육] - 전문적인 교과과정 개발을 통한 예술교육 촉진 - 단계별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한 수료인정 제도		[유사사례] 일본의 가나자와 직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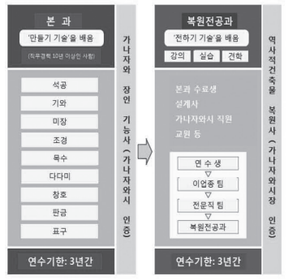
III. 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3_ 서울시민 예술대학 운영체계

[참고사례] 일본의 가나자와 직인대학교(金沢職人大学校)

- **전통계승을 위한 직인문화 전문 대학**
  - 기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의 직인을 대상으로 고도의 기술향상을 위한 연수와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 대상 공개를 위한 장인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수행

- **시민과 학생 대상 강좌 개설**
  - 직인의 기술을 시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장인의 기술과 직인문화의 이해 및 관심을 높이고자 초, 중, 고 및 일반 시민 대상 강좌를 개설, 직인의 지도하에 장인의 기술을 교육



> "스무살이건 여든살이건 누구든 배움을 멈추면 늙는다.
> 누구든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이 젊다.
>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
> 헨리포드

SEOUL CITIZEN ART COLLEGE

라운드 토론

토론 1
이흥재 _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토론 2
백　령 _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3
주일우 _ 문학과지성사, 문지문화원 사이 대표

토론 4
박영정 _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5
최혜자 _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1] 지식나눔도시로 가는 시민예술대학을

이흥재(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1. 시민지식도시

서울 시가지 중심의 훌륭한 '지식상징'은 자랑할 만하다. 세종로사거리에 서울에서 제일 큰 교보문고가 자리 잡고, 건물 몇 층에 걸쳐 멋진 시 구절을 사시사철 내걸어 두고, 시청사의 도서관은 편하게 독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가득하다.

상징을 넘어 실질 '지식도시'로 바뀌는 길은 무엇인가. 시민들이 지식을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고, 공동체 활동으로 지식을 나누는 일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지식이 삶 속에서 일상이 되는 도시, 이를 '시민지식도시 서울' 또는 '지식나눔도시 서울'이라고 이름 붙여 정책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창조인재를 키우고, 지식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은퇴자 지식재무장'의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로 갈 수도 있겠다. 그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특히 예술을 일터, 쉼터, 삶터에서 가까이 할 기회를 무한리필하는 공공서비스는 장수시대의 도시만들기 전략으로 삼음직 하다.

왜 시민대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시민지식도시로 가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학습네트워크와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커뮤니티 실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생활의 활력과 행복을 증가시킨다. 사회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 열쇠를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만남의 장이 될 수도 있다.

2. 정책기조

시민예술대학은 큰 틀에서는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마당이다.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때 3가지 측면을 정책기조로 삼을 수 있겠다.

첫째, 소양함양의 보완적 측면이다. 학교의 예술교육이 매우 미흡한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감안하여, 국민 예술소양 함양을 교육과 학습으로 보완한다고 하는 기조를 갖는 것이다. 지자체가 국가정책을 보완 · 조절하는 새로운 학습거버넌스 모형이다.

둘째, 생활실천의 적극적 측면이다. 문화예술 활동의 폭발적 증가에 맞춰, 문화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술을 제대로 향유하고 이를 자발적 창조로 꽃피우도록 하는 측면이다. 예술의 사회환류를 통해 맑고 밝은 활력도시를 만들어가는 문화흐름(文流)정책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측면이다. 학습기반의 창조도시, 지식기반의 지식나눔도시를 지향하는 지속발전 가능 도시만들기 정책으로 추진하는 측면이다.

3. 시민지식도시 실천 전략

1) '시민 평생예술학습 도시'만들기를 시문화정책의 새로운 아젠다로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시장 산하에 두는 상징정책을 펼치고, 문화와 교육의 관계를 명확 단순화하여 강화한다.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과 절차를 서울시민의 문화수준과 정책현실에 맞게 재구성한다. 시민예술학습을 지도하거나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양성토록하며, 시민문화예술교육자료센터를 운영토록 한다.

2) 시민의식과 취향을 키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구축에 연계

이는 예술교육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식하여 추진한다. 다만, 예술과 문화는 어느 하나에 종속시키지 않으며, 예술을 중심예술과 주변예술로 구분하지 않도록 한다. 예술교육을 시민의 문화권으로 간주하여 소중하게 다루고, 이론과 실기는 물론 관계가 있지만, 이론 보다 실기 중심으로 감수성을 키워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했으면 한다.

4. 추진 주체 다원화, 네트워크화

3) 프로슈머 예술활동을 장려

아마추어 시민예술활동, 공동체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시민헌장'을 수립하여 널리 공포하고, 아마추어와 프로간의 관계 공진화 모델을 구축한다. 미래 예술가 양성에 실질도움이 될 수준 높은 교육(예: 독일 뮤직슐레)에서부터 은퇴자 일자리 전문교육(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직인대학)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생산자화의 '계승형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역할을 병행한다.

1) 다원화: 서울시 외에도 민간단체, 대학, 기관이 참여

시민평생예술학습도시에 걸맞게 학습주제별로 특화하여 학습거버넌스를 추진한다. 평생학습시스템 구축과 평생교육도시 창조를 위해 대학교 · 사회교육시설과 협력하는 구조화된 교육을 추진한다.

예술에 국한하여 시작하더라도 스포츠, 문화적 활동, 취미생활,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연계화 장치를 구상한다.

2) 네트워크화

장기적으로는 창의적 학습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성인대상의 사회학습은 꾸준히 새로운 차원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자기개발이나 여가취미 수준을 뛰어넘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

창조적 전문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맞춤학습을 개발하며, 고령화사회와 지식정보사회에 살면서 개인맞춤의 즐거움이 솟아나는 '활동의 장'으로 펼쳐야 한다.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인, 연계 프로그램, 이웃끼리 하는 문화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가족단위 예술학습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이는 전략이다.

5. 고려할 점

새로운 수요에 맞춰 따라가도록 발전시키기 위해 비용부담, 접근성, 개인적인 시간, 자신감 결여, 강사 수준 등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수업료 분할납부, 맛보기 세션 제공, 경험담 제공, 단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절히 활용하게 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공급여건의 한계가 있음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사회적 자본 구축과 지역문화정책의 통합적 공진화 전략으로 개발토록 해야 한다.

특수한 분야에서는 e-러닝을 내실 있게 병행 추진하도록 변화시킨다. 이는 시의 정책과 개인차원의 수요에 맞춰 사회문화기관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인간의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의 조화, 가정교육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전체적인 통합에 유의하여 추진하면 성공적으로 진행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IT도시, 스마트지식도시 답게 시정차원에서 기술발달이나 교육수요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및 행정도 적극 개선하여 차별화해야 한다.

문화예술행정가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기획가, 매개자, 매니저, 신규채용자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2]

백령(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메가 시티인 서울에서 새로운 개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예술대학”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예술에 대한 다면적 해석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교육기관 설립의 당위성 마련은 평생교육, 생애주기적 문화예술교육 등 많은 이슈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발제 자료 검토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하여 서울형 모델 구축과 성공적 시민예술대학의 출발을 위한 논의에 일조하고자 한다.

–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 5개 기관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더 많은 기관의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 현재 서울 25개구 내 전수는 아니더라도 제시하는 문제점의 의미 부여를 위한 사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미술관,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면 전체적인 현황과 이에 따른 서울 문화예술교육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특히 초보자 수준 혹은 일회성 강좌 중심 등은 더 세심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의 틀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의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출발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 이슈이나, 이에 대한 접점을 찾기보다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과는 다르다’ 라는 선언적 단계에서 멈추고 말았다. 평생교육을 인문교양, 문화예술스포츠, 직업 능력향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이중 하나인 문화예술을 논의할 것인지,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과 사회적 문화역량의 향상이라는 대 전제에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선택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한다면 선택에 의한 교육이념, 철학, 구성(내용과 방법), 행정, 학습자 이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역이나, 연령, 이슈 등과의 연계가 아닌 예술교육으로서 다양한 연령층과 만나는 방식에 대한 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문화센터와 변별력을 가져야 한다. 단지 무료라는 것만의 변별력이 아니라 효과, 내용과 방법의 구성에서 변별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혹은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나 사회적 인식을 수용,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제시된 세계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한 근거 제시와 구체적 방향이 필요하다. 2014년 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글 프로젝트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변화하는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사람은 타고난 제조자(maker), 생산자이다.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영감(inspiration)을 주고 받는 공동체 구성과 공동 작업이다. 인간–인간, 인간–사회, 인간–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자존감 형성과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상력은 창조적 사회로의 진입은 물론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 연구의 방향은 미래에 대한 제시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시민예술대학의 개념을 규정하는 주제어라 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가장 근간이 되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시민의 예술적 경험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예술이 도구나 수단이 아닌 예술 자체로서 시민의 삶과 생활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면 프로그램 운영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운영체계 설계 역시 보편성, 접근성, 전문성의 세 가치를 추구하면서 허브형, 매개형, 전문교육의 모델을 모두 포함하여 구현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운영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육 주체, 인력 구성과 재원 조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진행될 때 기관의 철학, 행정, 과정의 순환적 연계가 가능하다.

–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운영체계나 교육과정 설계 등 순차적 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구의 연계성과 단계성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함께 논의되었으면 하는 것들도 포함시켰다.

[토론 3]

주일우(문학과지성사 대표)

문학과지성사는 2007년부터 〈문지문화원 사이〉를 설립해서 인문,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인문교육의 경우 기존의 교육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기에 학생 수가 모자라는 고전들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협업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라틴어와 희랍어의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대학에서조차 이런 강좌의 학생들을 개별 단위에서 모으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한 문화가 한 언어의 매개자, 통역자를 잃는다는 것은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성과의 한 줄기와 만남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생각에 그런 분야를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의 분야는 대체로 오래된, 효과적인 문제풀이의 오래된 축적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협업의 필요성이 늘어난다. 그런 협업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보다는 좀 더 새로운, 혹은 잊혀진 영역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다.

시민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봉착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하거나 대기업이 큰 예산을 가지고 따라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도 애써 발굴해서 함께 협력하던 강사들에게 다른 형태의 자리들을 제안함으로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토대가 허약해졌다. 인문학 열풍과 더불어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수요에 정부기관이나 사회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껏 자생적으로 시작했던 씨앗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 수단들만이 동원되면서 시대의 요구에 사회 안에서 제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큰 흐름은 끊겼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부문만 과도하게 확대되고 민간은 축소되는 형태는 결국 공공에 모델을 제공할 다양한 민간의 노력들을 꺾어버려 결국 단순한 공공 정책의 답습을 반복하도록 만들 뿐이다. 시민예술대학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고려할 사항은 공공이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용 자료만 보고 작성하는 토론문이라서 발표가 정확이 어떤 모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발표에서 발표자는 허브형, 매개형, 전문교육형의 3가지가 시민예술대학의 모델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 시민예술대학에서 전문교육을 한다는 것은 연구의 범위와 내용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지만,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단계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과 전문교육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매개형은 매개자를 키우자는 것으로 보이고 허브형은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조절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둘 사이의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매개형에서 염두에 둘 수 있는 매개자는 예술가들 중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전문적으로 예술교육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강사들이다. 전자의 경우, 적절한 의사소통의 기술과 교수법에 대한 도움을 주어서 스스로 시민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용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일반적인 예술가-강사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특수한 경우에, 혹은 더 넓은 범위에 교육을 확산할 때 필요한 인적 자원인데, 이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위한 플랫폼까지 모두 공공에서 새로이 제공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이들이 학교나 기존의 기관들에서 예술 교육의 수요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매개형에서 양성한 사람들이 허브형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어서 그들의 활발한 상호작용 속에서 시민예술교육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어느 순간부터 예술정책이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예술정책은 예술을,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이 되거나 예술을 향유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이나 시민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거론되는 시민예술교육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4]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ㅇ발표에서는 서울시민예술대학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진단과 서울시민 및 전문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하였고, 향후 서울시민예술대학의 운영 모델을 허브형, 매개형, 전문교육형의 세 가지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음. 몇 가지 논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시민예술대학 설립 방안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함.

ㅇ일반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존의 평생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 체계 내에서 프로그램 설치나 커리큘럼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므로, 별도의 제도화된 '시민예술대학'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일반적 수요를 시민예술대학에 대한 수요로 동일시할 수는 없음.
– 시민예술대학 설립 문제와 별개로 서울시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에 대해 진단하고, 가용 가능한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현단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의 표현력, 소통능력 향상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치유를 통한 갈등 해소로 사회 통합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따라서 '복지 관점'에서 사회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을 일반 시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제시된 모델 가운데 허브형과 매개형은 기존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재편에 의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시민예술대학'의 운영이라 할 수 있고, 전문교육형은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체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라면 '시민예술대학'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민예술대학'이라는 명명법을 유지하는 경우 후자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만약 '시민예술대학'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전문교육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대로 전문교육형 시민예술대학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면 시민예술대학 설립 문제로 논의를 하기보다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서울창의예술학교의 명칭을 서울시민예술대학으로 바꾸면서 그 안에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개선 방안을 담는 것도 한 방법)
– 전문교육형 시민예술대학은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이나 시민대학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커리큘럼과 운영 제도를 통해 '준전문가'를 길러내는 수월성 교육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ㅇ운영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체계나 평생교육 체계와의 관계 설정

– 세 가지 모델의 설명에서 기존 교육체계와의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설정 필요
– 다양한 예시를 들어보면,
• '전문교육형 시민예술대학'의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로 구축 및 운영
• 별도의 시민예술대학을 만들지 않고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관내 '예술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특정 예술대학 내 설치. 현 서울시민대학 모델을 예술분야에 적용)
• 서울시에서 시민예술대학을 설립하고, 프로그램별로 각 대학 및 예술단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방안
• 서울창의예술학교, 서울시민대학 등 기존 체계 내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예술대학'을 운영

ㅇ교육내용에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해 보임.

– 첫째, 시민수요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 문화예술교육 및 평생교육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기능교육 위주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문교육형 모델은 필연적으로 '기능' 위주의 (수준별)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인 교육기관의 운영에서 '보편성과 수월성의 균형'은 어떻게 실현가능한지?
– 둘째, 앞의 과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인문학 열풍(?)을 고려한 '예술 + 인문학' 강좌로 시민예술대학의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기능위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안이 인문학 내지 창의성 교육에 있다고 보면, '시민예술대학'의 교육 내용을 "예술"에 한정할 것인지 "예술 + α"로 확장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만약 확장적으로 접근한다면, 기존의 '시민대학'에 문화예술교육 또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모델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 셋째, 반대로 예술분야에 한정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델이라면, 특정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수적으로 보임. 다만 '전문예술인' 육성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준전문예술인' 육성을 목표로 할 것인지?

[토론 5] 시민예술대학에 대한 몇 가지 생각할 지점

최혜자(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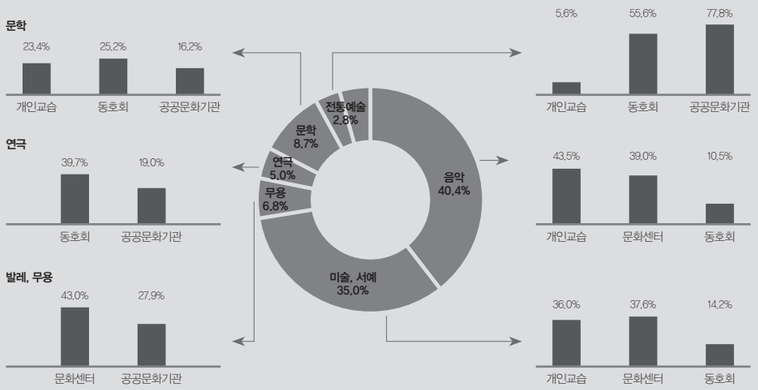
1. 머리말

사전에 제공된 발제의 내용을 볼 때, 이 연구는 서울시민의 요구와 전문가의 판단을 기초로 서울에 시민예술대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로 허브형과 매개형 그리고 전문형을 고려중인 것으로 이해한다. 아마 다음 진도가 다양한 의사 수렴을 통해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거나 요구되는 형태를 설계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필자는 사전 발제 내용만으로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예술대학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별도의 기관을 상정하고 있는지 혹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대학의 형태로 상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어떤 형태인가 필요하고 그것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 필자도 일정하게 긍정하고 있음도 밝혀둔다.
연구를 위해 실행한 예술교육에 대한 시민 의식 및 실태 그리고 전문가 의견의 내용은 예측 가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요구와 기대 내용은 비용이 저렴하며,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선택(아!) 일 것이다. 여기에서 비용 저렴한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은 공공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되었다. 그런데 "다양하고 질 좋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2.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생애 교육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고 이는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욕구가 연령별 기준으로만 변주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함은 실제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해야 하며, 다양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담보되는 것이다. 누구나 처음 예술교육 혹은 활동에 입문하는 당사자들은 집에서부터의 거리 즉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는 데에는 반드시 접근성만의 결과는 아니다. 사실 취향과 가치가 지속성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으며, 이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의 내용 중에도 동호회를 통한 예술교육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르별 이용 교육기관]



이 설문만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지만, 실상 예술교육은 동호회로 전화되어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서구에서도 성인교육단계에서 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활동이라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예술교육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긴가민가한 이상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상의 변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예술 공동체, 이것이 마을이라는 공간을 기반하고 있을 때 서울 시민의 일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서울시민 스스로 예술 활동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지점을 확대하고 용이하게 하며, 이것이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질 좋은 프로그램의 기대

다시 위에서 제기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보자. 다양한 프로그램도 어렵지만, 질 좋은 프로그램은 한층 어려운 과제이다. 질을 담보하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질을 담보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강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는 대신 "과거보다 세련되나 여전히 정형화 된 예술교육"으로 전락하기도 쉽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문제의식이 '개인과 사회가 예술적 창의성 및 다양성을 증진하여 공동체적 문화 사회를 지향'하거나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질 관리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충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가 상충하고 통합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 낯선 일도 아니다. 사실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은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할 때 담보되는 것이다. 일단 어떠한 시스템도 다양함을 담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착안된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혹은 파트너십이다. 주변 주체를 적극적으로 중심으로 끌어들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여기에 다시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공개적 실험과 결과 공유방식이다. 문제는 그러한 실험을 할 주체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역량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예술교육체계 제안사항]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울시민대학은 허브형 혹은 네트워크 형태로 서울시내 곳곳에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이 여기에 머문다면 굳이 서울시민예술대학이라는 거창하고 권력이 생산될 듯 한 명칭이 맞는가 하는 생각에 이른다.

4. 실험성과 시민성이 담보된 형태에 대한 고민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은 누구나 원하고 기대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전문가 설문에서 "취향과 선택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과 "전문 강사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접근성을 확대하고, 동호회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예술교육기획자의 전문성 제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회 전반의 환경, 실험적 활동 여건 조성 그리고 활동이 축적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거치지 않고 전문성이 함양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한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천재성에 대한 기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민예술대학의 필요성이 솔솔 커진다. 이 발제에서 품고 있는 문제의식이 대학입시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자유롭고 실험적인 "시민성이 담보된" 예술학교라면 굳이 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 없이, 철학적 기반과 창의적 실험 그리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삶에 기초하여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의미가 여기에 이른다면, 발제에서 이야기하는 허브형 시민예술대학 형태와 개폐가 자유로우며 전문성이 담보된 실험학교형(Pop– Up Store)이 결합 된 방식은 어떨까 상상해본다.

MEMO

서울문화재단

MEMO

서울문화재단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 2
- 예술이 교육이다

“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시민예술대학”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T. 02)758-2000 F. 02)6008-7347
www.sfac.or.kr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재단